

# 너무나 가혹했던 '22세 이하 의무 출전 제도'

## 'K리그 잔류' 광주FC 2024시즌 결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대회 요강을 통해 22세 이하(U-22) 선수의 출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회 요강 제32조(출전 선수 명단 제출 의무) 4항에 따르면 각 구단은 한국 국적의 U-22 선수를 출전 선수 명단에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U-22 선수가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만큼 엔트리가 축소되고,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되더라도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 교체 카드가 줄어든다.

U-22 의무 출전 제도는 젊은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도입됐고 실제로 이재성(1. FSV 마인츠 05)과 김민재(FC 바이에른 뮌헨), 설영우(FK 츠르베나 즈베즈다), 양현준(셀틱 FC), 양민혁(토트넘 홋스퍼 FC) 등 젊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구단은 핵심 유망주들을 끌어모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반면 일부 구단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짧은 시간만 투입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이 제도로 인해 구단들의 빈부 격차가 두드러지기도 한다. 시민구단인 광주FC는 산하에 두터운 유망주 풀을 보유

### <4> 젊은 피 활용 아쉬움

문민서·안혁주·정지훈 등 활용 김윤호·노희동은 활용도 저조 엄지성 유럽 진출 직후 치명타

한 금호고를 18세 이하 팀(U-18)으로 두고 있지만 졸업생들이 모두 온전한 전력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타 구단에서 검증된 U-22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이정호 감독은 지난해 엄지성과 허율이 주축을 이뤘던 U-22 라인업을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허율이 2001년생으로 올해부터 규정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감독은 금호고를 졸업 후 각각 단국대와 고려대에 진학했던 문민서와 안혁주를 풀업하며 변화를 꾀했다. 문민서와 안혁주의 합류로 엄지성과 정지훈, 노희동까지 올 시즌 개막일을 기준으로 다섯 명의 U-22 자원을 갖췄다.

다만 노희동은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로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광주FC는 사실상 네 명으로 U-22 규정을 충족해야 했고, 시즌 초반에는 엄지성을 중심으로 안혁주와 문민서가 출전 시간을 나뉘기 시작했다.

엄지성은 6월까지 15경기에서 2득점과 3도움을 올렸다. 올림픽 대표팀 소집 기



광주FC 엄지성이 지난 5월2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5라운드 홈경기에서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간 치러진 네 경기를 제외하고 1라운드부터 19라운드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U-22 카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엄지성이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안혁주와 문민서, 정지훈 세 명으로 U-22 규정을 충족하기엔 아쉬움이 있었고 금호고 소속의 김윤호와 준프로 계약을 맺으며 보강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기록도 아쉬움을 뒷받침한다. 올 시즌 문민서가 31경기, 안혁주가 13경기, 정지

훈이 9경기, 김윤호가 1경기에 나섰지만 풀타임을 소화한 경우는 전무했다. 엄지성이 이적 전까지 15경기 중 9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결국 엄지성의 이탈은 광주FC에게는 위기로 직결됐다. 엄지성을 대신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U-22 자원은 전무했고, 그가 K리그와 광주FC에서 보여준 존재감 역시 대체 불가능했다. 때마침 엄지성의 이적과 맞물렸던 추가 등록 기간 선수 영입 불가 조치 역시 광주FC의 위기를 가

속화했다. 이 문제점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광주FC로서는 우울한 상황이다. 광주FC는 U-22 자원 수급을 사실상 금호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즉시 전력감을 수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에는 자유 계약이 가능한 유망주를 두고 머니 파워에서 밀리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다. 결국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중퇴 지원등 중 깜짝 스타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캡틴' 손흥민, 8년 연속 올해의 인물 등극

스포츠 선수 분야... 70.7% 1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FC의 캡틴 손흥민(사진)이 8년 연속으로 올해를 빛낸 스포츠 스타에 등극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13세 이상 1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의 인물' 면접 조사(표본 오차 ±2.3%p)에서 손흥민이 70.7%의 압도적 지지로 스포츠 선수 분야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EPL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2022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올랐고, 2016-2017시즌부터 여덟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생산하고 있다.

주장을 맡고 있는 올 시즌에는 13경기에서 5득점과 6도움을 터트렸고, 개인 통산 316경기에서 125득점과 68도움을 누적하며 토트넘 소속 선수로는 최다 도움 기록도 보유하게 됐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7년부터 8년 연속 스포츠 분야 올해의 인물로 인정 받았다. 2014년 조사에서 5위를 기록하며 처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그는 2015년 1위를 차지한 뒤 2016년 2위로 내려섰지만 다시 타이틀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손흥민에 이어 2위에는 축구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FC·12.7%), 3위에는 탁구의 신유빈(대한항공·10.4%), 4위에는 배드민턴의 안세영(삼성생명·8.2%), 5위에는 펜싱의 오상욱(대전시청·8.0%)이 이름을 올렸다.

한규빈 기자

## 광주 배드민턴 꿈나무, 국제 대회서 '승승장구'

태국 원정서 金 2·銅 3 수확

광주 배드민턴 꿈나무들이 국제 대회에서 연이어 무더기 메달 사냥에 성공하며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있다.

광주 유소년 배드민턴 선수단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빠툼타니 탐마삿 대학교에서 열린 BAT(태국배드민턴협회) 요넥스 빠툼타니 주니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2024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남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원천 요넥스 밀양 코리아 주니어 인터내셔널 챌린지 2024에서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나선재(전대사대부고 1)가 U-17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운서(광주체중 2)는 U-15 여자 복식에서 박유정(시흥능곡중 2)과 금메달을 합작했다.

여서영(광주체중 3)은 전성빈(진광중

3)과 U-17 혼합 복식, 이운서는 정재민(신상중 2)과 U-15 혼합 복식, 박금별(광주계림초 6)은 양지우(진말초 6)와 U-13 여자 복식에서 호흡을 맞춰 동메달을 각각 추가했다.

광주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밀양에 이어 빠툼타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광주 지역 배드민턴 꿈나무들의 실력이 돋보이고 있다"며 "안세영 선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 목포스포츠클럽, 전국 우수 지정스포츠클럽 교류전 성료

6개 클럽 선수단 150여명 참여 축구·배드민턴 등 2개 종목

(사)목포스포츠클럽 주관의 전국 우수 지정스포츠클럽 교류전이 지난 13-15일 목포국제축구센터와 목포과학대체육관, 남악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목포스포츠클럽은 전국의 6개 지정스포츠클럽 전문 학생선수 중심으로 기량을 겨루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우수 지정스포츠클럽 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번 교류전에는 목포스포츠클럽, 서울 마포스포츠클럽, 광주송원스포츠클럽, 무안스포츠클럽, 영암군세한스포츠클럽, 곡성스포츠클럽 등 6개 클럽의 전문

학생선수단 150명이 참가해 축구와 배드민턴 등 2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참가 선수들은 종목 경기 외에도 목포시 삼학도코르즈 탐승 등 지역 문화체험도 곁들였다.

박경래 목포스포츠클럽회장은 "지난 서울 마포스포츠클럽과의 업무협약이 계기가 되어 진행된 이번 전국 우수 지정스포츠클럽 교류전은 전문 학생선수들이 지역을 떠나 서로 기량을 점검하고 스포츠클럽간 축제 형태의 교류전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국의 지정스포츠클럽간 상호 교류 및 친선대회가 자주 개최되어 미래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 전문 학생선수들이 좋은 추억과 견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된 (사)목포스포츠클럽은 2023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격상됐으며, 축구·배드민턴·파크골프 등의 종목 운영 등으로 전국 210여개 스포츠클럽 중 운영 활성화면에서 선두주자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목포스포츠클럽의 교류전 개최 등으로 스포츠클럽의 운영 체계가 해가 지날수록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며 "전남도체육회에서 2025년도 전남스포츠클럽교류대회 예산을 처음 확보한만큼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